

박찬승 정후보자 자기소개서: “진정성 있는 대학원생 박찬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37대 총학생회 입후보하게 된 28살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기 박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꼭 당선되고 싶어 이렇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7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지금까지 학생회와는 완전히 다른 학생회를 만들고, 원우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원우들이 37대 총학생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총학생회장 역할을 충분히 해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로 원우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 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학원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며,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석사과정 때부터 우리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 글쓰기 방법, 책 읽는 방법, 대학원 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 모르다보니,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배와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대학원 강의조교,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로젝트 연구원, 그외 연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모자란 점들이 채워지고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석사논문 작성과 연구원 일을 병행할 시기 때 저는 저 스스로 글쓰기 실력이 매우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대학교 연구자들과 몸소 부대끼면서 실력을 키워온 사람으로 우리 학교 많은 원우들의 고충을 듣고 이해하며, 진정성 있게 공감할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 영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앞선 36대 총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임원들의 일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인상 깊게 기억이 남습니다.

먼저, 대학원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원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일반대학원 제36대 총학생회는 이번 해 3월쯤에 대학원생 인원 감소로 인한 학과 구조조정 안이 학교 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인 대학원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운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원우들의 논문 글쓰기를 돕고자 논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와 일반대학원 제36대 총학생회는 많은 원우들이 학위 논문을 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관계 문제, 논문 쓰기 교육의 부재, 생업으로 인한 논문 쓰기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와 학교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저와 36대 총학생회는 여러 원우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이번 해 6월 29일에 우리 학교에서 논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논문콘서트 사회를 보며 봉사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논문 콘서트에서는 강사분이 원우들에게 효과적으로 논문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원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논문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질문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 이외 사회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비영리법인 ‘어울리’라는 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울리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을 연구하여, 주로 대구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켜주는 회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법을 어울리 소속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구시민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능력 또한 향상됐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와 세대가 다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 연구 활동 내용은 ‘남구 대명6동 주민들 간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마을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어르신분들과 많은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민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폭넓은 활동 경험들을 토대로 대학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 원우들은 정말로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중장년층, 한국인/외국인, 전업대학원생/직장인 대학원생 등등 세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 구성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저의 마지막 소개를 “진짜 진정성 있는 28살 청년 대학원생”이라고 우리 학교 원우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성 있게 대학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원우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학교생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승 정후보자 이력

학력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17년 2월 17일)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졸업(2021년 2월 22일)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기 재학 중

활동 사항

- (현)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2020년 3월~현재)
- (전)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보조연구원(2020년 3월~2021년 2월)
- (현) 영남대학교 강의 조교(2021년 9월 1일~현재)
- (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2021년 4월~현재)
- (현) 비영리법인 '어울리' 대표운영진(2020년 3월~현재)

기타 활동 사항

- 2021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참여형 사업 참여
: 지원관으로 2회차 회의 진행(2021년 6월 11일/6월 18일)
- 비영리법인 '어울리' 주최 퍼실리테이션 회의 참여
(2020년 6월 27일~8월 1일)
- 위기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
(장소: 별을 만드는 사람들/기간: 2021년 5월 17일~현재)

자기 소개서

학부 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체육전공자로 현재는 특수체육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김도윤입니다. 학부 시절부터 학생회 활동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작은 일을 묵묵히 챙겨 가며 작은 이벤트에서부터 크다면 큰 행사까지 학우 그리고 원우 동기 선후배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공정한 규칙 속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상황파악을 한 후에 대처하는 능력과 대중 속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생기며 실패에서 오는 교훈으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 김도윤은 경험을 중시하며 그 경험을 위하여 낮은 자세로 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모름과 질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향과 성장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확신합니다.